

외신은 세계 각국이 침략 외래종 동식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한다. 동식물의 세계화가 불러온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도 오래전부터 황소개구리, 블루길에 개장초, 돼지 풀 등 외래종 동식물로 인해 '동식물 세계화'에 대한 좋은 경험을 쌓아두고 있다.

구입이 쉬운 애완동물 탓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적 물류 흐름을 통해 동식물은 자연스럽게 세계를 흘러 다닐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처럼 거대한 흐름은 아니더라도 고대부터 세계적 물류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오랜 세월이 걸쳐 동식물의 세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것이기도 하다.

감자 옥수수 커피 담배 토마토 고추 면화 등, 식용·기호작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종으로 굳게 믿고 있는 동식물 가운데서도 언젠가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와 정착한 것들이 많다고 하지 않는다.

인류도 마찬가지다. 고대 인류의 이동경로를 보면 어떤 인종이 어디서 발생해서 그곳에 뿌리 내리 지금껏 있었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시계추가 한번 좌우로 크게 오가듯 동서 또는 서동 방향으로의 민족 대이동이 몇 번 있었다는 역사적 흔적으로도 알 수 있다.

이동성 빠른 두 발 가진 인류가 세계 곳곳을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세계화, 그리고 어린이 해외연수

누비다. 어딘가 안전한 곳에 외래종 동식물처럼 뿌리를 내려 오래 오래 살아 온 곳이 지금의 터전이었을 것이다.

요즘 미국 유럽 등 비교적 개방된 국가 도시에서 보면 그곳이 결코 백인들만의 국가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세계에서 흘러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빼고도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흑인종 황인종 홍인종 등 인종은 물론 수많은 민족적 얼굴들이 한데 섞여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할 것이지만 한국도 그런 인종, 민족의 섞임이 시작

되고 있다.

고대부터 아주 느리게 서서히 이루어져 온 세계화가 오늘날 현대 문명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정말 급류를 이루기 시작했으며 여기서 한국이 예외가 될 수 없다.

근대 민족 수난의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유·이민사는 이제 세계 속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을 6백여만 명에 이르게 했다. 숫적으로만 보면 한국인구의 10분의 1을 넘고, 또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한국인 없는 곳이 없다.

방학이면 수많은 어린이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도 그런 세계화의 무관할 리 없다. 세계 언어화되고 있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영어권 국가들로 연수를 떠나고, 다음 세기 최강국으로 점쳐지는 중국으로 중국어를 배우러 가기도 한다.

영어, 기타 외국어 교육 등을 위한 방학 해외 연수여행을 두고 문화 상대주의, 가치관 혼란 등을 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해외연수는 세계화라는 그 흐름이 맞고, 크게 우려할 사안도 아니다. 다만 이상 열풍에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등 적지 않은 부작용과 여기서 오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남는다. 진작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화 교육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지 않았던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세계화가 대체하지만 여기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반 세계화'라는 것도 있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진정한 웰빙은 '세계화 아닌 지역 단위의 경제운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가속기만 달고 달리는 세계화에 '반 세계화' 운동은 지혜로운 브레이크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화 교육에 '반 세계화 운동'은 필수적 한 분야임이 분명하다.

불자의 눈

관람료문제 '천천히 신중하게'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전년에 비해 탐방객이 50% 증가 했고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실적은 139%, 안전사고는 37% 증가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지 6개월, 아직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위의 수치는 '입장료'와 운영 실태의 합수 관계를 대변한다. 요약하면, 입장료 폐지로 인해 탐방객은 늘었지만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도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정부차원에서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의 개연성을 본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가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마땅한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밀력, 입장료만 폐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없었던 지난 6개월의 국립공원 운영 실태가 문화재 관리에도 적용된다면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문화재 관람료의 폐지는 사찰의 재산권 행사와 국가 유물의 관리, 신앙 대상으로서의 문화재가 갖는 정체성 확립, 적절한 보수와 보존 시스템 유지 등 많은 사안들과 함께 풀려야 할 문제다. 관람료 징수라는 하나의 행위만을 두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입장료처럼 관람료도 밀력 폐지하고 사후 수습을 제대로 못하면, 사찰의 수행환경과 국가유물의 파손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관람료 문제를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狂의 선교행위 앞 참담한 스님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매우 민망스러운 사진 한 장이 떠돌고 있다. 부선의 한 지하철 역 구내에서 십자가를 든 '빨간 조끼'의 남자가 탁발을 하는 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진 속 '빨간 조끼'의 남자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스님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경전을 읽는 스님 표정을 참담한 그 자체로 읽힌다. 반면, '빨간 조끼'의 남자는 스님에게 회개 내지는 개종을 종용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기독교 내부의 정서와 상관없이, 갈수록 극성스러워지는 전도 행위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서고 있는 지경이다. 경기도에서 NGO 활동을 하는 한 스님도 인근 지역 교회의 책임자로부터 개종을 요구 받았다고 털어 놓은 적이 있다. 대학원도 보내주고 집과 차를 사주는 등 생활을 책임지고 결혼도 시켜 주겠다고 회유를 해 '일감'로 뿌리쳤다든 얘기였다. 승산 스님의 제자 현각 스님이 서울의 지하철에서 "당신은 미국인이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신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얘기는 한국의 스님들에게도 익숙한 경험담이다.

다종교 사회에서 국민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종교간 다름이 없어야 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화합을 말하지만 생활 현장에서는 어처구니없이 광적인 선교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민족의 문화와 역사, 국민의 정신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려는 종교계의 노력이 아쉬운 시점이다.

‘종교자유’ 칼럼

22. 종교교육 정책 바로 세우야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교육부 문제의식 결여...교육정책 재검토 절실

'예배의식 강제와 종교과목 필수'라는 일부 종교계 사립학교의 만행은 오만한 기독교계와 둔감한 정부의 공동책임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피해갈 수 없는 곳에 그들을 쳐 놓고, '여기 온 이상 내 종교를 믿어라. 안 믿어도 예배드리고 종교교육은 받아라' 든가, 인성교육이란 핑계 아래 '좋은 건데, 왜 안 먹어?' 하는 식의 무지와 독선으로 버티고 있다. 강의 석군 사건 변론에서도 대공학원측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왔고, 강요는 없었다"며 순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그러나 종교교육에 대한 학교재정권을 과도하게 인정해 왔던 교육당국의 문제의식 결여와 무사안일주의, 정책 부재가 문제를 더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무엇이 문제냐는 듯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다.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무능과 무책임이 놀라울 뿐이다. 서울시교육청도 "계속 장려되지는 하지만 법적 조항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눈앞의 책임만 모면하려 한다.

이제 교육이라는 공적 기능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비록 중립학교일지라도 특정종교 학생들만 선발할 수 있는 특수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종교교육'을 허용할 수 있는지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해방 이후 한 번도 따져보지 않은, 더구나 평준화 이후 종교자유권과 맞물려 분명히 거론되었어야 마땅한 국민의 교육권과 인권에 대해 선입견 없이 재론해야 한다.

교육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국가적 대사이고, 따라서 국가는 교육형성권을 가지며 세금을 내는 국민은 양질의 학습권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도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국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뿐이지,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얼마든지 사적 의지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 아래 공·사립을 막론하고 국가는 예산을 지원하고 모든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감독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정책,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교교육 정책을 재검토하고 바로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와 학생 개인 간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비켜서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서는 더 강한 국민적 비판과 원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종교 강요 때문에 '자비와 사랑' 대신 '소외와 차별'을 맛보고, '자유와 소신' 대신 '편견과 굴종'을



그림=교육부 사학법개정 홍보 리플렛

익히게 되며, '배려와 관용'보다 '증오와 폭력'을 배우게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간 인목으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첫째, 헌법과 국제규약 준수이다.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 규약' 제18조 제2항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사주팔자(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얻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천축,연축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실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책자 안내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퓌읍 운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1-8413

봉축 목언마을 부처님 점안식

- 행 사 : '목언마을' 부처님 점안식
일 시 : 불기 2551년(2007년) 8월 12일 오전 10시 (일요일, 음력 6월 30일)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403-2번지 '목언마을' ☎ 0502-114-오! 천사, 031)672-9114, 011-8282-112
오시는 길
자가용 : 중부고속도로-일죽, 음성나들목-목언마을
대중교통 : 서울(30분마다)-남부터미널-동서울터미널-죽산하차

'목언마을' 부처님 점안식에 초대합니다. '목언마을'은 시인 겸 수필가인 승려 지개야가 부처님의 도움으로 洞天 칠월산에서 홀로 5년간 창건한 사찰입니다. 부처님 가피로 점안식을 봉행합니다. 동참하시어 부처님 가피를 가득 받아 가시기를 간곡히 서원합니다.